

[ 사회 ]

무너진 기초 질서

6 공중 화장실

“쓰레기·악취 숨 막혀요”

3일 하루 휴가를 내서 서울에서 온 친척 오빠와 함께 지산유원지에 놀러간 정세영(여·27·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화장실 때문에 기분이 크게 상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풍겨나오고, 어두운 안쪽에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던 것이다. 정씨는 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정씨는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광주에 있나 싶어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시민들이 화장지를 통해 떼가는 경우가 많아 궁여지책으로 화장실 출입구 1곳에 대형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던 하지만, 급한 응변 때문에 화장실에 들른 이들은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내 공공화장실도 증빙을 앓고 있다. 시민들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관할 구청 등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내 공공화장실은 ▲동구 45 ▲서구 92 ▲남구 55 ▲북구 159 ▲광산구 131 등 총 482곳(개방 화장실 333곳 포함)으로 위치에 따라서 ▲주유소 220 ▲공원유원지 104 ▲시장 86 ▲개인 건물 57 ▲체육시설 8 ▲역과 터미널 7곳 등이다. 이들 공공화장실은 구청에서 공공근로 인력과 공익요원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시 공원 유지 보수비에 포함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 화장실은 확실한 지원 기준이나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자인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내 공공 화장실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실시해 적절한 관리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화장지 없는 곳 많아 '황당'

시민들 내집처럼 사용해야

지난 2일 낮 '서구민의 날' 행사가 한창인 상무지구 시민공원. 행사장의 흥겨움을 뒤로하고 공원 한쪽 화장실에선 공공 근로자가 바빠 움직이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공원 5호 화장실은 아무런 처위도, 종이 모자와 흰 볼병으로 가득했다. 이미 사용한 화장지도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상무공원 내 공공 화장실은 8곳.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공근로자 3명이 돌아가면서 오전 9시부터 청소한다. 공공 근로자 김모(여·45)씨는 “오늘 같이 행사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이나 주말 이후에는 화장실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휴지를 아무렇게 버리는 것은 물론, 물도 내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광전동 버스터미널이나, 광주 지하철 역내 화장실 안에는 화장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터미널과

광주시내 공공화장실은 ▲동구 45 ▲서구 92 ▲남구 55 ▲북구 159 ▲광산구 131 등 총 482곳(개방 화장실 333곳 포함)으로 위치에 따라서 ▲주유소 220 ▲공원유원지 104 ▲시장 86 ▲개인 건물 57 ▲체육시설 8 ▲역과 터미널 7곳 등이다. 이들 공공화장실은 구청에서 공공근로 인력과 공익요원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시 공원 유지 보수비에 포함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 화장실은 확실한 지원 기준이나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자인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내 공공 화장실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실시해 적절한 관리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구 부부 6쌍 합동결혼식

3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 진월동 포도원 교회에서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남구 지역의 저소득계층 부부 6쌍이 남구청과 포도원 교회·지역 상공인들의 후원으로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10년 만에 세 딸 앞에서 식을 올린 윤재전(39)·염경숙(38)부부를 포함, 30~50대의 한국인 신부 4명과 한국으로 시집 온 중국인 신부 2명 등 6명이 뒤편에 면사포를 썼다. 뒤편이 신랑·신부들은 2박 3일간 제주도도 신혼 여행을 떠났다.

지역 상공인들의 후원으로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10년 만에 세 딸 앞에서 식을 올린 윤재전(39)·염경숙(38)부부를 포함, 30~50대의 한국인 신부 4명과 한국으로 시집 온 중국인 신부 2명 등 6명이 뒤편에 면사포를 썼다. 뒤편이 신랑·신부들은 2박 3일간 제주도도 신혼 여행을 떠났다.

광주시 '자연장' 본격 추진

보건부 시범사업 유치 신청

광주시가 매장 위주의 장례(葬禮)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 시범사업 유치가 나왔다.

시는 자연장을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시내에서 접근성(10분~20분 거리)이 좋은 기존 공설묘지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23일 자연장 시범사업 유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 심사단은 4일 시가 제시한 자연장 시범사업 조성 후보지 현황을 둘러볼 계획이다.

시는 5월 말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등 9억4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756평 규모로 영구장·합동장·잔디장 등 테마별로 자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어 유골이 쉽게 자연에 동화되도록 하는 장례 방식.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거나 사연이 있어 화장하는 사람들이 유골을 뿌리려고 하지만 정작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연장이 조성되면 국도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파괴 방지, 다양한 장례문화 욕구충족 등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기자 chae@kwangju.co.kr

소방호스 관창 모두 1,964개 도난

일제조사 마무리

광주·전남 소방본부는 3일 광주·전남지역의 공동주택 소화전 내 소방호스 구리 관창(管槍·nozzle) 분실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25개 아파트에서 총 1천964개(시가 3천928만 원 상당)의 구리 관창이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도난사태가 발견된 광주지역 아파트는 ▲용봉동 주공(164개) ▲신광동 삼농(77개) ▲신강동 주공(43개) ▲중흥동 우성(33개) ▲연제동 광명(20개) ▲양산동 일신 1차(18개) ▲연제동 주공(15개)

▲중흥동 중흥 2차(14개) 등이다. 전남지역은 ▲나주 죽림동 삼성(126개) ▲나주 송월동 주공(25개) 등이다. 시·도 소방본부는 최근 구리 관창 도난이 잇따라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아파트 국내 소화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호스 구리 관창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각 아파트 시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미 분실된 구리 관창은 가격이 저렴해 도난 우려가 없는 알루미늄+플라스틱 관창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역기자 ahj@kwangju.co.kr

올 봄 황사 끝났다

상순이후 사라질 듯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이달 상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찾아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5월 한 달 중국 신장과 황하 상류지역, 몽골과 중국의 경계에 걸친 건조지역에서 황사가 계속 발생하겠지만 상순 이후에는 한반도에 강한 남서기류가 유입돼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국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르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 오는데 남서기류가 이를 막게 된다는 분석이다.

5월의 경우 지난 2001년(5월16~19일)과 2004년(5월4~5일)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1971년부터 2000년까지 5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황사발생일수는 0.9일에 불과하다.

지난달 30일 현재 올해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총 8차례 발생했으며 올해 전국 평균 황사발생일수는 5.4일도 평년값인 3.6일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올해 3월31일부터 4월2일에는 '슈퍼급' 강한 황사가 나타나면서 기상관측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지역기자 wool@kwangju.co.kr

축축한 이슬비 5월 4일 (음 3월 18일) <전국날씨> 한두 차례 비가 온 후 개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비오는 어린이날 어찌죠? 광주·전남 5~20mm 예상. 어린이 날이 긴 주말 날들이 길에 달갑지 않은 비소식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또, “일요일인 6일에는 점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흐린 뒤 개겠다. 광주 지역의 낮기온이 최고 26도에 이르러 등 한낮에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전남소방본부 8일까지. 전남도 소방본부는 3일 어린이 날을 전후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기간에 지역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파티외식산업.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www.party-food.co.kr

국비무료모집. 과 정, 교육내용. 주책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대상, 기타사항. 현대직업전문학교

행자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 51,223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행정직렬, 공안직렬. 시험 안내, 개강: 5월1일 주·야(휴일)반 모집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개강 5월1일. 김명(PMS)학원